

더위 날리기



권혁진 (추밀공파 36세)

올 여름 십년 만의 더위를 대단치 않게 생각했다가

찜통더위를 견딜 수 없어 괴로운 몸 찬물만 덮는다.

수돗물 땀병에 데워지니 찬기를 느낄 수가 없고

선풍기로 온통 샤워해도 쫓아 보내지 못하더라.

가게로 달려가 얼음을 연실 입으로 넣어 봐도

용광로 쇳물인 몸뚱이 식혀 볼 일이 막막하다.

종일을 그렇게 허둥대다 한밤중 냉기로 기가 살아

지친 몸 한숨 쉬면서 편히 꿈나라를 여행이다.

시인, 아동문학가 한국문인협회 아동문학 회원, 민족통일협의회 총주지부 부회장, 국제문학비탕문인협회 총청지회장 한국이삭문학회 고문, 증원문학회 회장, 성균관 총주향교 장의, 한국서정문학상 수상, 한국이삭문학상 수상

■ 家憲

언직행엄

부정공파 화은공계의 가헌

언직행엄(言直行嚴) 말은 바르게 하고 행실은 엄격하게 하라! 言直千秋法 行嚴百代師 若人不能此 生也所爲何 말이 발라야 함은 만고의 법칙이고 엄정한 행동은 백대에 걸친 교훈이라. 사람이 이를 못하면 살아있든들 어디에 써먹으랴!

言直 行嚴 花隱家憲 若人不能此 生也所爲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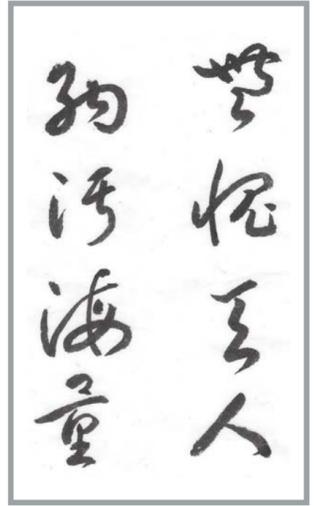
■ 사자성어 - 成均館 副館長 權 奇 甲(복야 36세)

무괴천인 남오해량(無愧天人 納污海量)

“하늘에 부끄럽지 않고 땅을 내려봐도 부끄럼이 없고, 바다처럼 더러운 도량물도 받아들여 정화하는 넉넉한 도량을 가지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운동주의 시구절과 같이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으로 모든 것을 포용하는 자세를 가지자는 것이다. 無愧와 不愧: ‘맹자’의 ‘진심편’의 ‘군자삼락’의 두번째를 ‘不愧天’, ‘俯仰無愧’라고도 한다. ‘무괴’는 자칫하면 불교의 無愧로 해석하면, 괴(愧)는 내심으로 자신이 저지른 것에 대해 괴로워하는 것이고,이런 반성이 없다면 그것이 바로 ‘무괴’이니 용례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

君子有三樂 군자에게는 세 가지 즐거움이 있으나, 而王天下不與存焉 천하의 왕이 되는것은 여기에 넣지 않는다. 父母俱存 兄弟無故 一樂也 부모모임이 모두 살아계시고 형제들이 무고한 것이 첫째 즐거움으로, 仰不愧於天 俯不疚於人 二樂也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고 사람들을 굽어 보아 부끄럽지 않은것이 두번째 즐거움이며, 得天下英才而教育之 三樂也 천하의 영재를 얻어 가르치는 것이 세 번째 즐거움이다.



생활속의 한방건강



권희원 (시중공파 37세) 한의학박사/연성대학교 겸임교수 주) 건강중심 대표이사

사상체질의 입문

1.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여 체질판별 이제마는 사상체질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했다. 치료를 하는 환자들에게 동일한 상황을 주문하였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 그 환자의 체질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어느 날 그를 찾아온 환자들에게 마당 한쪽에 쌓여 있는 장작더미를 반대편으로 옮겨놓으라고 주문했다. 하체가 부실하여 걷는 것을 싫어하고 또한 장작 옮기는 일을 하찮게 여겨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은 환자는 태양인이었다. 하체가 약하지만 설명설명 한 개씩 던지는 환자는 소양인이었다. 건실한 하체로 빠르게 요령 있게 장작을 여러 개씩 안아서 꾸준하게 옮겨놓는 환자는 소음인이었다. 행동이 느리긴 해도 튼튼한 하체의 힘으로 여러 번 오가며 움직이게 모두 옮겨다 놓은 환자는 태음인이었다.

2. 폐대간소(肺大肝小)의 태양인 태양인은 인체의 오장 중 상부에 있는 폐장의 기능이 발달되어 있다. 그러므로 목과 어깨가 비교적 튼실하다. 폐는 공기 중에서 산소를 혈액으로 받아들이고 혈액속의 노폐물인 이산화탄소를 공기 중으로 배출하는 역할과 호흡에 의해 열을 발산함으로써 체온 조절기능을 한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나 사람에 대해서 호·불호가 비교적 분명하다. 강렬한 눈 빛을 가진 사람이 많으며, 돌격대장 스타일이다.

유명한 개그맨 강호동씨는 태양인이다. 얼굴의 이마는 약간의 각이 있고 넓다. 서 있는 모습을 보면 상체가 발달되어 있고 골반부위가 작아 전체가 역삼각형의 모습을 보인다. 목 부위와 어깨가 발달에 따라 목소리가 맑지는 않지만 우렁차다. 속삭인다하는 소리도 약간 떨어져 있는 다른 사람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다. 그러나 속어 떠들썩한 것을 감출 수 있을까? 솔직하고 숨김이 있어도 금방 알아차릴 것이다.

태양인은 상체가 발달해서 상체의 힘이 좋다. 배심도 좋고 추진력도 좋아, 어떤 일을 하고자 하면 풀물처럼 추동해 갈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영향력에 들어오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때에 기가 산다.

반면에 태양인은 오장 중 간장의 기능이 약하다. 간은 해독작용을 하며, 영양소의 분해 및 합성을 하며 양분을 저장하거나 배출한다. 간은 시력은 물론 청력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간의 기능이 약하여 쉽게 지치게 되고, 그러다보면 뒷목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고, 이에 따라 일이 잘 안풀리면 즉각 화를 내는 경향이 있다. 교육원을 하는 태양인 P원장에게 ‘버럭 오바바’라고 놀려대면 호탕하게 웃고 나서, 고칠려고 하는데 잘안된다고 덧붙인다.

하체가 약한 태양인은 소변을 자주 보고 대변이 잘나오면 건강한 것이다.

비교적 건강은 좋은 편이어서 잔병치레도 거의 없다. 그러나 한번 아프면 크게 앓는다. 상체에 비해 하체가 약해서 한기를 받으면, 종아리가 저리고 다리에 통증이 생기기 쉽다. 이 때 허리에 문제가 있는지 동시 진단이 필요하다.

이러한 태양인에게 좋은 운동법은 약해지기 쉬운 하체 운동을 강화하는 것이다. 자전거 타기나 발차기, ‘앉았다 일어나기’와 같은 운동은 태양인에게 좋다. 강호동씨는 발달된 상체운동에 하체를 강화시켜 순간적인 힘을 활용해서 당시의 천하장사인 태음인 이만기씨를 단숨에 제압하여 새로운 천하장사가 되었다. 아마도 태양인이 초반제압을 하지 않았다면 은근과 끈기의 태음인을 이기기 쉽지 않았으리라.

음식물은 간의 기능이 약하므로 분해에 간의 에너지를 많이 써야하는 쇠고기 돼지고기 등의 칼로리 높은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다. 열이 많아 저절로 태음인은 열을 내려주고 허리와 척추를 튼튼하게 해주는 새우, 조개, 오징어 등의 해산물이나 채소·과일 등을 먹음으로써 간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메밀·냉면 등을 통해 열을 내릴 수 있다. 마늘·고추 등 자극성이 강한 음식은 삼가는 것이 좋다. (다음호에 계속)

■ 이달의 과

천지 비 (天地 否)

權門易經文化學會



客卦 傾否, 先吝后喜. 休否, 大人吉. 其亡其亡, 系于苞桑. 有命无咎, 畴祉. 包羞. 主卦 包承, 小人吉, 大人否, 亨. 拔茅茹, 以其彙, 贞吉, 亨. 否 否之匪人, 不利君子贞, 大往小来

위의 하늘[天]이고, 아래는 땅[地]이다. 비(否)는 ‘막히다’. ‘답답하다’라는 뜻이다. 하늘은 하늘대로 위에 있고, 땅

은 땅대로 아래에 있다. 천지 화합이 일어나지 않아 막혀 있는 상태. 답답하다는 뜻으로 비(否)를 과 이름으로 하였다.

이 과를 얻은 사람은 모든 일이 침체되어 난처한 지경에 처해있다. 하늘은 하늘, 땅은 땅이라는 식으로 화합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반쪽의 상태가 지속된다. 답답하고 안타깝겠지만 적당한 시기가 올 때까지 은인자중 하는 것이 상책이다.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의사 소통이 되지 않아 마치 달이 먹구름 속에 숨은 상태. 사업 확장을 피하거나 신규 사업에 손을 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상황이 호전될 때를 기다려야 한다.

이 否의 시대에는 상하가 不通이다. 따라서 君子가 正道를 지켜도 천하에 쓰임이 없으니, 이에 천하도, 군자도 같이 이롭지가 않다는 말이다. ‘小人 吉’이라 소인배는 이익을 취하는 형국이다. 그러나 ‘大人否 亨’이라. 진정 大人이 된다면? 막힌길 通하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否 : 아니다(부정사) 부/막히다 비. <集韻(집운)>에서 ‘입으로 허락하지 않는 것(口不許也)’이라고 했다. 즉 이는 주의 말하는 행위를 강조하는 글자인 것. 그런데 또 자형으로 보면 否자는 丕와 口의 합자로, 구멍(口)이란 것은 뚫려있어야(통해야) 하는 것인데, 구멍(口)이 뚫려있지 않은 것(丕)을 나타내는 상태이니 ‘막혀있다’는 뜻이 나오는 것. 否자는 ‘부/비’의 두 가지 독음으로 쓰이는 불음자: 막힌다는 뜻으로 쓸 때는 ‘비’라고 독음한다. 따라서 과명에 쓰인 否는 ‘비’라고 독음해야 한다.

행복한 결혼을 찾아주는

하나 결혼정보



소장 권경분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889-5 상제리제센타 A동 1706호 (지하철 2호선 분당선 선릉역 ①번 출구)

- 상담전화 : (02)501-1177
○ FAX : (02)508-5285
○ H·P : 010-3203-3555
○ 지택 : (031)794-0980
○ E-mail : hm1003@hanmail.net

권문(權門)의 자녀 결혼상담을 언제든 환영하며 성심성의껏 우대하겠습니다.

능동문인의 창립

- 목적: 권문의 전통적인 기록을 유지하고 이를 문학적인 자료로 보존하기 위한 인재양성과 재능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규모는 1차로 한국문인회 산하 회원중 축진을 위주로 하여 구성합니다.
창립총회는 대중원 사업부에서 주최하고 날짜는 9월중이며 장소는 제기동입니다.
참가자격 및 조건은 한국문인회 회원 출신분들과 관심있는 분들과 이후 ‘시행세칙’이 마련되면 그에 따르고자 합니다.
본회는 순수문학 및 기록문화, 저널리즘을 망라하는 것으로 하고, 각 장르별, 지역별, 특성별 소모임도 결성하고자 합니다.
1차 사업은 ‘막나고설문학상’ 제정입니다.
연락처: 능동문인회 사무국 권 오 희 (HP 010-4377-5465)
사업부 사무국 권 오 철(HP 010-8346-8881)

안동권씨 서울청장년회 8월 월례회 안내

(전국체육대회 제3차 준비위원회)

- ▲ 일시 : 2017년 8월 10일 (목) 19시
▲ 장소 : 강남구 언주로 135길13(논현동 83-19) 가람국수 ☎02)541-8200 학동역 10번출구 직진 130m, 좌측 180m
· 회장 권승호 : 010-6286-3909 · 사무국장 권순용 : 010-4911-9435
· 후원계좌 기업은행 : 권순용 010-4911-9435

2017년 8월 1일 안동권씨 서울청장년회 회장 권승호

20년전통의 농장직매

고송농원

- ♣ 도·소매 ♣ 경조화환 ♣ 조경공사
♣ 꽃바구니 ♣ 각종화환 ♣ 관엽
서울산岳會 權赫九

http://kosong.flower.com byby1002@naver.com
TEL : (02)5752-5555 FAX : (02)6008-0677 H. P : 010-2240-4242